

유아 기질의 안정성*

- 단기종단분석 -

The Stability of Temperament During Infancy*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이 형 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 수 박 혜 원
박사과정 김 말 경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원 장 장 유 경
연구 원 최 유 리

Child & Family Major, Kyung Hee University

Ph. D. Candidate : Hyung Min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Choi, Hye Won Park

Ph. D. Candidate : Mal Kyong Kim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Director : You Kyung Chang

Research Fellow : Yu Li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Using the Toddler Temperament Scale(Saslow, 1993), the temperament stability of 239 toddlers from the ages of 18 and 30-months was analyzed longitudinally. TTS was composed of five sub-scales; Activity, Approach-

Corresponding Author : Choi, Hye Won Par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37-308 Mookoo-2 dong,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2367 Fax: +82-52-259-2888 E-mail: hyewonc@mail.ulsan.ac.kr

* 본 논문은 한솔종단연구의 자료 일부를 사용하였음.

Withdrawal, Adaptability, Intensity, and Moo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established when stabilities of the temperamental sub-scales from 18- to 24-months, 24- to 30-months and 18- to 30-months were examined. For example, in relation to 'Approach-Withdrawal' factor, which was the most stable across infancy, infants who showed higher scores in 18 months of age also showed higher scores in 24- and 30-months of age. In addition, the stability of temperament in the categorical status of each infant was analyzed. Inf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t each age: 'Easy', 'slow-to-warm up', or 'difficult' according to their relative status within each age group. It was found that 54% of infants stayed in the same temperament group from 18 to 24 months, and so did 78% of infants from 24 to 30 months. In particular, 'easy' group illustrated the highest stability among the groups; 71.2% of infants stayed in the same temperament group between 18 and 24 months of age, while 85.9% of infants did so between 24 and 30 months of ag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high temperament stability during the studied age bracket, while also confirming the fact that stability, in general, increases with age.

주제어(Key Words) : 기질(temperament), 걸음마기(toddlerhood), 안정성(stability), 단기종단연구(Short-term Longitudinal Study)

I. 서론

기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Gesell(1937)의 아동관찰의 분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utter, 1988). 그는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발달초기부터 나타나 이후로도 지속되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영아기 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여러 연구자를 통해 지지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는 Thomas, Chess와 Birch의 뉴욕 종단 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이하 NYLS, 1968)이다. 이들은 기질이란 아동이 생후 수개월 내에 나타내는 반응 유형으로, 이후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양육방식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반응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질 개념의 유용성은 첫째, 기질이 개인차(individuality)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둘째, 기질이 선천성(constitutional basis)을 지녔는지 또는 기질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셋째, 기질이 다른 기능이나 적응을 예언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Cameron, 1977, 1978; Millions, 1978; Rutter, 1988; Simonds & Simonds, 198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질 개념의 유용성을 근거로 기질의 개인차와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질의 개인차는 기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의 하나다. 기질의 개인차 즉 기질의 분류에 기여한 대표적인 연구인 NYLS에서는 기질의 아홉 가지의 구성 차원들 중 5 가지 중 규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의 질 차원들에 기초하여 3 가지의 기질 유형을 발견하였다. 3 가지의 기질 유형은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로서 이러한 기질의 아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순한 아동(easy child)은 행복하게 잠을 깨고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잘 놀며, 쉽사리 당황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수유나 수면이 이루어지고,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이며, 새로운 생활 습관에 쉽게 적응하며 좌절에 순응한다. 둘째,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은 눈을 뜨기 전부터 울고,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적이다. 이들은 불행해 보이고 적대적이며 조그만 좌절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느린 아동(slow to warm up child)은 수동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움츠러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결국 흥미를 가지고 이에 참여한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NYLS의 아홉 가지 범주의 기질 차원과 3가지 기질 유형을 기초로 하여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했으며, 이러한 기질의 차원과 유형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Bates, 1987),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각 기질차원 및 유형의 신뢰도가 입증되어 왔다(Thomas, Chess, & Birch, 1968). 또한, 국내에서도 사회·정서 발달 연구와 관련하여 기질을 다룬 연구의 근간을 이룬 이론이 모두 Thomas와 Chess(1977, 1986)의 기질 이론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이은혜, 2003).

기질의 선천성은 기질과 관련된 이러한 개인차가 생애 초기부터 관찰될 때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선천성은 기질의 안정성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기질의 안정성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인 NYLS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질이 비교적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라고 했으나, 그 후 Thomas와 Chess(1986)는 기질을 결코 변하지 않는 실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Thomas와 Chess(1977, 1986)는 일단 영아가 태어난 후에는 기질적 특질이 가정 내·외의 환경 및 인지와 정서를 포함한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지속적인 진화적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기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강화시키고 조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질은 특히 환경적 영향의 변화에 의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Goldsmith(1988)도 기질의 발달을 다중적인 면을 가진 과정으로 간주하고 특히 정서와 관련하여 감정 상태의 다양한 측면, 행동 경향, 반응 경향이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로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기질의 특징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질이 대체적으로 선천적인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학자들은 아동의 기질이 시간에 따라 계속성을 가지며 기질의 유형에서 그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안정성 또한 일관적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Campos & Bertenthal, 1989; Fox, 1989). Maziade, Boudreault, Thivierge, Capera와 Cote(1984)의 단기 종단 연구에 의하면 생후 4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영아 기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4개월에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영아와 극단적으로 순한 기질의 영아는 약 60% 이상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질 차원에 속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후 1년 이내의 양극단의 기질 특성의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며(Bates & Pettit, 1984; Rothbart, 1981), 더 장시간 연구한 결과들에서도 위와 일관되는 연구결과를 보고할 뿐만 아니라 기질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 범주로의 극적인 이동은 쉽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한다(Carey & McDevitt, 1978; Korn, 1984; McDevitt, 1976). 구체적으로 Rothbart(1981)는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3개월부터 6, 9, 12개월에 각각 기질을 측정할 결과 활동성과 미소짓기는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매우 일관성이 있었으며, 돌보기 어려운 기질은 6개월 이후부터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ates와 Pettit(1984)는 영아가 6개월과 13개월일 때 기질을 측정할 결과, 어머니에 의해 6개월에 까다롭다고 판단된 기질의 영아는 13개월에는 더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Blennow와 McNeil(1979, 1980)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의 기질을 생후 6개월, 1년, 2년에 측정할 결과 6개월의 까다로운 기질이 1세, 2세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최근의 Komsí, et al.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6개월부터 5.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기질의 하위 영역 중 활동성 수준, 미소와 웃음 제한에 대한 거부감, 공포 영역에서 영아기부터 아동 중기까지의 안정성이 나타났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질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연령층이 영아기 혹은 아동기로 각각 분리되어 한정된 발달 단계 내에서의 기질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즉, Rothbart의 기질에 대한 개념과 조적적인 정의를 이용하여 영아기 동안의 기질의 안정성을 연구(Carnicero, Perez-Lopez, Salinas, & Martinez-Fuentes, 2000; Denham, Lehman, Moser, & Reeves, 1995; Lemery, Goldsmith, Klinnert, & Mrazak, 1999; Rothbart,

1981; Rothbart, Ahadi, & Evans, 2000)와 아동기 동안의 기질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Aksan, et al., 1999; Kochanska & Knaack, 2003;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로 각기 나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종단적인 기질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 설계의 어려움과 측정의 동질성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이루어지지 못했다(Komsí et al., 2006).

국내의 기질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형 척도의 개발 또는 외국 기질척도의 타당도 분석(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위영희, 1994; 이경옥, 2004; 조수철, 김중훈, 최진숙, 1992; 천희영, 1991, 1997, 2006; 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1999; 최영희, 1987, 1988)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거친 이후의 외국 기질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였을 경우 문화권에 상관없이 유사한 유형이 나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기질검사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 외에도 많은 국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환경이나 적응에 대한 영향 변인으로 서의 기질을 분석하여(김영희, 1996; 김혜영, 2000; 이미애, 1995; 정은숙, 1984; 최연희, 2001; 표미정, 1997) 기질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왔다. 이처럼 기질에 관한 국내 연구는 기질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양육환경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보여 온 반면, 국외에 비하여 기질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천희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18개월)에서 유아기(30개월)로 전이하는 기간에 있어 기질의 안정성을 단기종단적으로 알아보고, 그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영아기에 주로 가정에 머물며 안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육기관이나 기타 외부와의 접촉이 증가하여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유아기 초기동안 기질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Komsí, et al. (2006)의 연구에서 기질의 하위 차원별로 안정성을 분석한 것이 있으나 기질 유형의 안정성을 살펴보지는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질의 차원별(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안정성 외에 Thomas & Chess(1986)의 기질 유형(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유형)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월령 및 성에 따른 기질 차원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질의 차원별 점수의 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질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시간에 따른 기질 유형별 안정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솔교육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종단연구(이하 한솔종단연구[장유경·이근영, 2006])의 1차(18개월 영아와 어머니)와 2차(24개월 영아와 어머니), 3차(30개월 영아와 어머니)연도의 연구 자료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상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들 중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30개월된 영아와 어머니 400쌍 중에 기질 질문지에 응하는 것을 동의한 최종 239쌍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아가 18개월 즉, 17개월 15일에서 18개월 14일($M = 18.01, SD = .32$)이 되었을 때와 24개월 즉, 23개월 15일에서 24개월 14일($M = 24.10, SD = .88$)이 되었을 때, 그리고 30개월 즉, 29개월 15일에서 30개월 14일($M = 30.1, SD = 0.30$)이 되었을 때, 각각 기질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보고로 이루어진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부모 중 영아기 양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머니이기애 어머니를 중심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모학력은 73.7%가 대졸 이상 학력자이며 연구 대상 가정의 55.6%는 월평균 201~400만원 소득의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 2006년 1/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이 3,443,933원(통계청, 2006)인 것을 볼 때 연구 대상 가정의 55% 이상이 중류층 가정에 해당했다.

<표 1> 연구대상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39$

변인	구분	N(%)	
영아 변인	성별	남아	137(57.3)
		여아	102(42.7)
어머니 변인	연령	30세 이하	65(27.2)
		31~35세	136(56.9)
		36세 이상	25(10.5)
		무응답	13(5.4)
	교육수준	고졸 이하	52(21.7)
		대졸 이상	161(67.4)
취업여부	대학원 졸 이상	15(6.3)	
	무응답	11(4.6)	
	취업	49(20.5)	
	미취업	181(75.7)	
가정 변인	지난 달 월수입	200만원 이하	36(15.1)
		201~400만원	133(55.6)
		401만원 이상	66(27.6)
		무응답	4(1.7)
	지난 달 월수입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5%이하	130(54.4)
6~10%		65(27.2)	
11~20%		25(10.5)	
21%이상		10(4.2)	
	무응답	9(3.8)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1)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백경숙(1996)이 변안한 걸음마기 기질 척도(Toddler Temperament Scale, TTS)를 사용하였다. TTS는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 Fullard, McDevitt, & Carey, 1984)의 9가지 기질구성 차원을 Saslow(1993)가 5가지 차원으로 수정한 기질 측정 도구이다.

TTS는 1세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TTS의 구성 차원은 활동성(Activity),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적응성(Adaptability), 반응강도(Intensity), 기분(Mood)이며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2점, “그런 편이다.”의 3점,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높은 점수일수록 각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질의 차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TTQ 는 기질 측정의 타당성 조사연구(최영희, 1988)를 통해 97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s α 는 .89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TTS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는 .82로 나타났다. TTS의 구성 차원별 높은 점수의 의미, 문항의 수, 채점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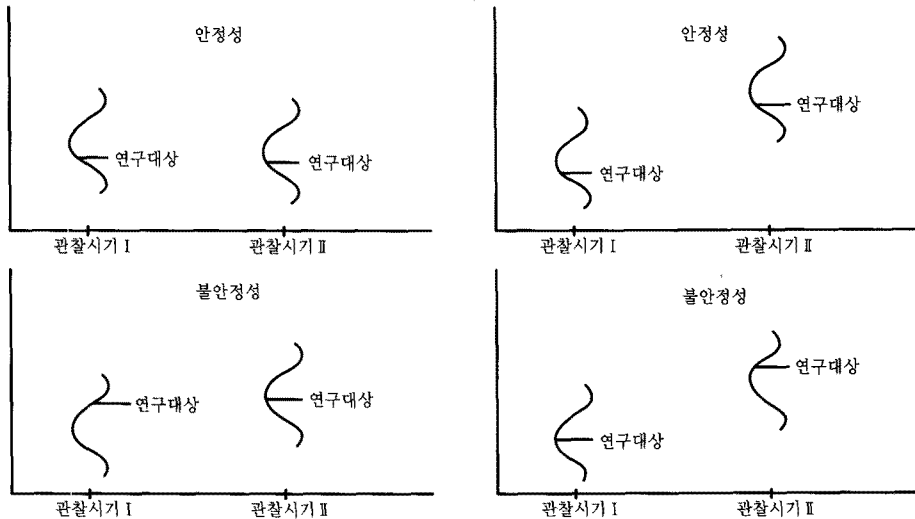
활동성(Activity)은 운동 행위(motor activity)를 말하며 아동이 목욕, 식사, 놀이 등을 하는 동안 신체 움직임이 활동적인지 아닌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척도는 새로운 상황(음식, 장난감, 사람)에 대한 초기 반응을 의미한다. 접근 반응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 표현(미소, 긍정적인 언어 표현과 표정)과 운동 행위(가까이 하기, 활동적 놀이)를 나타내고 회피 반응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기분 표현(울음, 떠들기, 부정적인 언어 표현과 표정)과 운동 행위(물러나기, 밀어내기)를 나타낸다. 적응성(Adaptability)은 새로운 또는 변화된 상황에서 아동의 장기적 반응(long term response)이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초기의 반응이 아니고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는데 용이한 정도를 나타낸다. 반응강도(Intensity)는 질이나 방향(긍정적 또는 부정적)에 관계없이 자극에 대한 아동의 반응 에너지 수준을 말하며 그 반응 표현이 격렬한 정도를 나타낸다. 기분(Mood)은 긍정적으로 즐거운, 기쁜 그리고 후호적인 행동과 기분을 우세하게 나타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불유쾌한 울음이나 덜 후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말한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low(1993)의 기질 유형 분류에 의해서

〈표 2〉 TTS의 구성 차원과 문항 수

구성차원	높은 점수의 의미	문항 수 (점수 범위)	문항 번호	
			정채점	역채점
활동성	신체의 움직임이 많다 (활동량이 많다) 문항 예: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책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10 (10-40)	1,12,19,25, 27,31	7,9,34,38
접근-회피	회피하는 정도가 크다 (새로운 자극에 접하면 위축된다) 문항 예: 낯선 사람이 봐주려고 하면 울거나 엄마에게 매달린다	9 (9-36)	5,28,45,49	14,20,23, 41,51
적응성	적응을 쉽게 하지 못 한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낮다) 문항 예: 낯선 사람과 15분 이상 같이 있어도 계속 그 사람을 경계한다.	9 (9-36)	22,42,46,48	6,17,30, 32,35
반응강도	반응 표현이 격렬하다 (강하게 반응 표현을 한다) 문항 예: 하던 일이 잘 안되면 큰소리로 울거나 발을 구른다.	10 (10-40)	8,10,15,18, 24,39,43	2,29,37
기분	불쾌한 기분을 많이 보인다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닌다) 문항 예: 잠에서 깨어나면 찡그리거나 칭얼대거나 혹은 운다.	13 (13-52)	4,11,13,26, 36,44,47,50	3,16,21, 33,40
전체		51 (51-204)		



〈도표 1〉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포함하는 상대적인 변화
 자료원 : Learner(1978) p. 128.

그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Carey(1973)가 제시한 분류방식을 기초로 하여 TTS 의 다섯 가지 차원(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중 유아의 점수가 각 차원의 평균 점수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영역이 2개 이상 존재 시 까다로운 기질로, (-)1 표준편차 낮은 영역이 2개 이상 존재 시 느린 기질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은 순한 기질로 분류하였다. 단, 전체 평균은 표준화되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본 연

구 집단 평균에 대비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기질의 유형분류가 준거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정의되므로 기질의 안정성이란, 특정 개인의 준거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발달과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불안정성이란 발달과정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함을 의미한다(도표 1).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기질의 차원 및 유형에 따른 안정성과 관련된 변인 간 또는 하위 요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 검증에는 *t* 검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한솔교육문화연구원의 한국 영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부모/환경과 관련된 정상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한솔중단연구의 1차(2005년 9월-11월; 생후 18개월)와 2차(2006년 3-5월; 생후 24개월)연구에 참여했던 연구 대상자를 재추적하여 3차(2006년 9-11월; 생후 30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차 연구 당시 24개월이었던 영아가 30개월이 된 시점에 대상 영아의 어머니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의뢰한 후, 연구절차 및 실시에 대해 훈련받은 아동학 및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5인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직접 대면하여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문지 완성에는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중 설문지를 작성한 239쌍의 자료만이 본 연구의 설문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영아의 월령 및 성에 따른 기질 차원별 분포

우선, 기질의 각 차원별 월령 및 성에 따른 분포를 알아보

기 위해 각 기질 차원에 대한 성차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나있듯이 18개월에서 남아와 여아를 비교해 볼 때, 기질의 차원 중 '활동성' 영역에서 남이는 평균 2.59(*SD* = .33)이고, 여아는 평균 2.46(*SD* = .32)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월에도 기질의 차원 중 '활동성' 영역에서 남이는 평균 2.54(*SD* = .26)이고, 여아는 평균 2.45(*SD* = .26)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월에도 기질 차원 중 '활동성'에서만 남이는 평균 2.56(*SD* = .26)이고, 여아는 평균 2.48(*SD* = .2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걸쳐서 기질 차원 중 '활동성' 영역에서 남아의 점수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질 차원별 점수의 안정성

기질 차원별 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령별 기질 차원별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8개월 기질차원의 '활동성'은 24개월($r = .24, p < .05$)과 30개월($r = .27, p < .05$)의 '활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월령별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18개월 기질차원의 '반응강도'는 24개월($r = .30, p < .01$)과 30개월($r = .20, p < .01$)의 '반응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월령별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기분' 또한 24개월($r = .13, p < .05$)과 30개월($r = .16, p < .05$)의 '기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월령별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18개월의 '접근-회피'의 경우에는 24개월($r = -.27, p < .05$)과 30개월($r = -.16, p < .05$)의 '접근-회피'와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24개월의 '접근-

<표 3> 월령 및 성에 따른 기질의 차원별 점수 차이 검증

N = 239

월령	기질차원	범위	평균(SD)			<i>t</i>
			전체 (<i>N</i> = 239)	남아 (<i>N</i> = 239)	여아 (<i>N</i> = 239)	
18개월	활동성	1.60-3.70	2.53(.33)	2.59(.33)	2.46(.32)	2.92**
	반응강도	1.70-3.60	2.77(.31)	2.76(.33)	2.78(.29)	-.39
	기분	1.15-2.85	2.18(.26)	2.19(.25)	2.16(.29)	.88
	접근-회피	1.00-3.67	2.42(.45)	2.38(.41)	2.47(.50)	-1.58
	적응성	1.22-3.22	2.38(.29)	2.39(.27)	2.36(.30)	1.00
24개월	활동성	1.70-3.20	2.50(.26)	2.54(.26)	2.45(.26)	2.58*
	반응강도	1.80-3.50	2.49(.27)	2.50(.29)	2.48(.25)	.71
	기분	1.69-4.54	2.24(.25)	2.25(.28)	2.23(.20)	.49
	접근-회피	1.78-3.11	2.40(.23)	2.42(.21)	2.38(.26)	1.28
	적응성	1.78-3.11	2.39(.24)	2.36(.23)	2.41(.24)	-1.45
30개월	활동성	1.90-3.20	2.53(.25)	2.56(.26)	2.48(.23)	2.54*
	반응강도	1.70-3.20	2.42(.27)	2.21(.27)	2.23(.27)	.52
	기분	1.54-2.69	2.22(.20)	2.39(.22)	2.37(.17)	-.76
	접근-회피	1.67-2.89	2.38(.22)	2.39(.23)	2.37(.23)	.55
	적응성	1.67-2.89	2.37(.21)	2.39(.20)	2.37(.23)	.79

p* < .05. *p* < .01.

(표 4) 월령에 따른 기질 차원별 점수의 상관관계

N = 2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개월 기질차원															
1.활동성	-														
2.반응강도	.40*	-													
3.기분	.12	.24**	-												
4.접근-회피	-.13*	.01	.38**	-											
5.적응성	.37*	.16*	.40**	.25**	-										
24개월 기질차원															
6.활동성	.24*	.12	-.15*	-.14*	.02	-									
7.반응강도	.11	.30**	.13*	.03	.12	.18	-								
8.기분	.04	.05	.13*	.07	-.03	-.03	.13	-							
9.접근-회피	.12	.03	-.15*	-.27*	-.05	.13*	.07	.16*	-						
10.적응성	-.19*	-.05	-.02	.13*	-.14*	-.04	.05	.13*	-.05	-					
30개월 기질차원															
11.활동성	.27*	.13	-.06	-.16	.09	.55**	.14*	.08	.21**	-.06	-				
12.반응강도	.14*	.20**	.13*	-.04	.13*	.21**	.51**	.16*	.09	-.04	.23**	-			
13.기분	-.06	.07	.16*	-.08	.06	-.05	.23**	.37**	.07	.08	.14**	.33*	-		
14.접근-회피	-.01	-.01	-.02	-.16*	.06	.09	.05	.17**	.41**	.06	.23**	.13*	.13*	-	
15.적응성	-.13*	-.06	-.02	.16	-.15*	.03	-.03	.15*	-.03	.43*	-.03	-.09	.10	-.01	-

* $p < .05$. ** $p < .01$.

회피'는 30개월의 '접근-회피'와는 정적인 상관($r = .41, p < .01$)을 나타내어 18개월의 '접근-회피'는 24개월과 30개월에 안정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4개월의 '접근-회피'와 30개월 사이의 '접근-회피'에서는 안정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18개월의 '적응성'은 24개월($r = -.14, p < .05$)과 30개월($r = -.15, p < .05$)의 '적응성'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24개월의 '적응성'은 30개월의 '적응성'과는 정적인 상관($r = .43, p < .05$)을 나타내어 18개월의 '적응성'은 24개월과 30개월의 '적응성'에서는 안정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4개월과 30개월 사이의 '적응성'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나타났다.

3. 월령별 기질 유형의 분포

시간에 따른 기질 유형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생후 18개월, 24개월, 36개월에 아동의 각 기질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8개월에는 순한 기질이 139명(58.2%), 까다로운 기질이 56명(23.4%), 느린 기질이 44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월에는 순한 기질이 152명(63.6%), 느린 기질이 45명(18.8%), 그 다음 까다로운 기질이 42명(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30개월에

는 순한 기질이 169명(70.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느린 기질이 36명(15.1%), 그 다음 까다로운 기질이 34명(14.2%)으로 나타났다.

(표 6) 월령별 기질 유형 안정성 추이

N = 239

18개월 N(%)	24개월 N(%)	30개월 N(%)
순한 기질 139(58.2)	순한 기질 99(71.2)	순한 기질 85(86.0) 느린 기질 7(7.0) 까다로운 기질 7(7.0)
	느린 기질 22(15.8)	순한 기질 85(86.0) 느린 기질 6(27.3) 까다로운 기질 1(4.5)
	까다로운 기질 18(13.0)	순한 기질 12(66.6) 느린 기질 1(5.6) 까다로운 기질 5(27.8)
느린 기질 44(18.4)	순한 기질 20(45.5)	순한 기질 16(80.0) 느린 기질 4(20.0) 까다로운 기질 0(0.0)
	느린 기질 22(50.0)	순한 기질 10(45.5) 느린 기질 12(54.5) 까다로운 기질 0(0.0)
	까다로운 기질 2(4.5)	순한 기질 0(0.0) 느린 기질 1(50.0) 까다로운 기질 1(50.0)
까다로운 기질 56(23.4)	순한 기질 32(57.1)	순한 기질 23(71.9) 느린 기질 1(3.1) 까다로운 기질 8(25.0)
	느린 기질 2(3.6)	순한 기질 1(50.0) 느린 기질 1(50.0) 까다로운 기질 0(0.0)
	까다로운 기질 22(39.3)	순한 기질 7(31.8) 느린 기질 3(13.7) 까다로운 기질 12(54.5)

(표 5) 월령별 기질 유형별 분포

N = 239

개월 수 기질	18개월 N(%)	24개월 N(%)	30개월 N(%)
순한	139(58.2)	152(63.6)	169(70.7)
느린	44(18.4)	45(18.8)	36(15.1)
까다로운	56(23.4)	42(17.6)	34(14.2)

〈표 7〉 기질 유형별 안정성 분포

N = 239

기질유형	개월 수	18개월 N(%)	18-24개월 안정성 N(%)	24-30개월 안정성 N(%)	18-30개월 안정성 N(%)
순한		139(58.2)	99(71.2)	85(85.9)	85(61.2)
느린		44(18.4)	22(50.0)	12(54.5)	12(27.3)
까다로운		56(23.4)	22(39.3)	12(54.5)	12(21.4)

4. 시간에 따른 월령별 기질 유형의 안정성

시간에 따른 월령별 기질유형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생후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아동의 각 기질 유형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표 7〉에는 18개월의 기질을 기준으로 하여 24개월과 30개월 사이에 같은 유형을 보이는 아동의 자료를 〈표 6〉에서 추출하여 제시하여 기질의 안정성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 결과, 순한 기질은 18개월의 전체 아동 중 139명(58.2%)이었으며, 그 중 24개월에는 99명(71.2%)이 여전히 순한 기질로 그리고 30개월에는 85명(85.9%)이 순한 기질 유형으로 남아있었다. 느린 기질의 경우 18개월의 전체 아동 중 44명(18.4%)이었으며, 그 중 24개월에는 22명(50.0%)이 여전히 느린 기질로 그리고 30개월에서는 12명(54.5%)이 느린 기질유형으로 남아있었다.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 18개월의 전체 아동 중 56명(23.4%)이었으며, 그 중 24개월에는 22명(39.3%)이 여전히 까다로운 기질로 그리고 30개월에는 12명(54.5%)이 까다로운 기질 집단에 남아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기질은 아동의 능력, 동기 등과 상호작용하는 '행동 방식 (behavioral style)'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나타낸다(Thomas, Chess, & Birch, 1968). 본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18개월 경의 영아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확장되어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36개월경의 유아기로 전이하는 시기에 있어 아동의 기질유형과 그 변화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질의 안정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기질의 안정성은 절대적 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행동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의하여 기질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Thomas & Chess, 1986; Lerner & Galambos, 19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Thompson, Lamb와 Estes(1982)는 환경의 현저한 변화는 특성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정성에는 측정의 동질성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기질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전에 각 차원별 월령 및 성에 따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차원별 성차를 알아보았다. 기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 중 성별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생후 6개월까지는 기질에 뚜렷한 성차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기질을 차원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남아가 여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을 잘 하고 적응성이 높다는 특성을 보고한다(원영미, 1987; Blennow & McNeil, 1979; Carey & McDevitt, 1978; Hus, Soon, & Strigler, 1981; Kohnstamm, 1989). 기질 차원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국내연구로 서수경(1993)은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높고, 여아는 남아보다 리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Blennow와 McNeil(1980)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적응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으며 주의 분산도가 크다는 보고와 남아는 주의력, 분산력, 활동수준, 사회성이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Bezirgianian & Cohen, 1994)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기질 차원 중 활동수준에 있어서는 성차가 어느 정도 나타났음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질의 다섯 가지 차원 중 '활동성' 영역에서만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18개월과 24개월 그리고 30개월에 걸쳐서 안정적인 성차를 나타냈다. 남아가 여아보다 시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활동성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김난영, 2001; Blennow & McNeil, 1980)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인 활동량이 많고 더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질의 차원별 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령별 기질 차원별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18개월의 기질 차원 중 '활동성' 과 '반응강도' 둘 다는 이후 24개월과 30개월에도 유의하게 정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기질 차원의 안정성이 유지된 반면에, 18개월의 기질 차원 중 '접근-회피' 와 '적응성' 은 이후 24개월과 30개월에는 그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4개월의 접근-회피와 '적응성' 은 이후 30개월에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인 걸음마기로 들어서게 되는 24개월 즈음에 아동이 신체적인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탐색이 강화되며,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곧 사회

적인 상호작용의 양적인 증가를 이끌어 내는 것에 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모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되는 경험을 통하여 기존의 외부에 대한 접근과 회피 및 적응도에 변화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즉, 걸음마기 즈음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위축 정도(접근-회피)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과 같은 기질적인 특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기질 유형에 대한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루고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기질 차원별 안정성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질의 안정성을 다룬 연구 중 Matheny, Wilson과 Sharon(1984)에 의하면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각 월령 사이에 활동성 수준과 주의력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새로운 경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24개월 이후의 기질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기질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가 진행되는 시간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단기 종단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월령에 따른 기질 유형 분포를 알아본 결과, 18개월, 24개월, 30개월 모두에서 순한 기질의 아동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느린 기질의 경우에는 30개월에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18개월에는 까다로운 기질보다 낮은 분포를 나타내다가 24개월과 30개월에는 까다로운 기질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에는 24개월과 30개월에서 전체 아동 중 14-17% 정도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NYLS(Thomas, Chess, & Birch, 1968)의 연구에 의하면 순한 기질의 아동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느린 기질의 아동이 전체의 15%,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전체의 10%, 그 어느 집단도 속하지 않는 아동이 35%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한 기질의 아동의 총 연구 대상자의 58-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30개월에는 순한 기질이 전체 기질 유형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NYLS(1968)의 연구 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논문에서는 각 차원별 평균점수와 그에 따른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기질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질 유형의 전체 비율 중에서 평균 값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안에 존재하는 기질 유형이 순한 기질로 평가 되었으므로 본 연구 대상이

무선 선정되었음을 가정한다면 모 집단과 같이 기질의 유형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을 때 평균으로부터 ± 1 표준편차 안에 포함된 기질 유형의 비율은 약 65%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NYLS(1968)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기질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유아가 35%가 존재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의 세 유형의 기질을 중심으로 산출해 낸 기질 유형이므로 순한 기질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밝힌다. 느린 기질의 아동의 경우는 15-1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경우 14-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NYLS(Thomas, Chess, & Birch, 1968)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넷째, 아동의 월령에 따른 각 기질 유형 추이를 알아본 결과, 순한 기질이 가장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18개월에 순한 기질로 분류된 아동이 30개월에도 순한 기질로 분류된 경우가 다른 기질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느린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나타났듯이 NYLS의 기질 차원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기질의 안정성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대체로 활동성, 민감성, 감정상태, 사회적 반응도, 적응성 등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각각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몇몇의 연구에서는 순한 기질에서 안정성이 느린 기질이나 까다로운 기질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남을 밝히고 있다. Swets-Gronert(1984)는 Thomas-Chess 체계를 이용하여 기질을 측정된 결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순한 기질이 까다롭거나 느린 기질 보다 안정성이 더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아동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인 기질이 영아기 이후부터 걸음마기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기질 중 순한 기질 집단의 경우 가장 안정성을 나타냈으나 느린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집단에서는 안정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질의 추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단기적이거나 종단적으로 그 추이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으로, 우선 본 연구는 생후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의 영아기의 기질의 안정성을 살펴본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기질의 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기 후기까지의 종단 연구를 실시하여 기질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질의 유형별 및 차원별 안정성과 더불어 각 유형별 및 차원별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난영(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김혜영(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경숙(1996).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영미(1987). 유아(4-7개월)의 기질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제22집, 595-613.
 원영미 · 박해원 ·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위영희(1994). 영유아 기질 측정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이미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혜(2003). 한국아동학의 발전사.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 무역학회 · **한국 아동학회 · 한국행정학회**, 1, 105-125.
 장유경 · 이근영(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 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1-274.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 과 인기도 및 기질 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수철 · 김중훈 · 최진숙(1992). 한국판 기질평가척도 개발. **신경정신의학**, 31(2), 363-383.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천희영(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천희영(2006). 아동의 기질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

향 분석:1980~2004. **아동학회지**, 27(4), 17-22.
 최성구 · 김승태 · 이소영 · 정유숙 · 홍성도 · 김이영(1999). 아동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201-210.
 최연희(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영희(1987). 5-8개월아의 기질 조사 연구. **아동학회지**, 8(2), 1-15.
 최영희(1988). RITQ의 타당성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89-102.
 통계청(2006). KOSIS 가계조사. <http://www.kosis.kr>.
 표미정(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ksan, N., Goldsmith, H. H., Smider, N. A., Essex, M. J., Clark, R., Hyde, J. J. S., et al.(1999). Derivation and prediction of temperamental typ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58-971.
 Bates, J. E.(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Bates, J. E., & Pettit, G. S.(1984). Continu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from six to thirteen months. *Child development*, 55, 729-739.
 Bezirgianian, S., & Cohen, P.(1994). Sex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Pediatrics*, 93(2), 171.
 Blennow, I. P., & McNeil, T. F.(1979). A questionnaire of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six-month-old infants :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13.
 Blennow, I. P., & McNeil, T. F.(1980). Questionnaire of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one-and two-year-old children: Development and standiz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37-46.
 Cameron, J. R.(1977).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1.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Cameron, J. R.(1978).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2.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140-147.
- Campos J. J., & Bertenthal. B. I.(1989). Locomotion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infancy. In F. J. Morrison. C. Lork. & D. P. Keating(Ed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 Carey, W. B.(1973). *Measurement of infant temperament in pediatric practice*. In J. C. Westma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 NY: Wiley.
- Carey, W. B., & McDevitt, S. C.(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Carnicero, J. A. C., Perez-Lopez, J., Salinas, M. C. G., & Martinez-Fuentes, M. T.(2000).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infancy : Stability and convergence of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1-37.
- Denham, S. A., Lehman, E. B., Moser, M. H., & Reeves, S.(1995). Continuity and change in emotional components of infant temperament. *Child Study Journal*, 25, 289-308.
- Fox, N. A.(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372.
- Fullard, W., McDevitt, S., & Carey, W.(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 205-17.
- Gesell, A.(1937). Early evidences of individuality in the human infant. *Science Monthly*, 45, 217-225.
- Goldsmith(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no. 88-04. University of Oregon, Eugene.
- Hus, C. L., Soon, W. T., & Stigler, J. W.(1981). The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Babies. *Child Development*, 52, 1387-1340.
- Kochanska, G., & Knaack, A.(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1087-1112.
- Kohnstamm, G. A.(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Cross-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 Chichester, England: Wiley.
- Komsi, N., Raikonen, K., Pesonen, A., Heinonen, K., Keski-Vaara, P., Jarvenpaa, A., et al.(2006). Continuity of temperament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 494-508.
- Korn, S. J.(1984).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ifficult/easy temperament: Infancy to young adulthood. *Merrill-Palmer Quarterly*, 30(2), 189-199.
- Lemery, K. S., Goldsmith, H. H., Klinnert, M. D., & Mrazak, D. A.(1999). Developmental models of infant and childhood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89-204.
- Lerner, R. M., & Galambos, N. L.(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Matheny, A. P., Wilson, R. S., & Nuss, S. M.(1984). Toddler Temperament: Stability across settings and over Ages. *Child Development*, 55(4), 1200-1211.
- Maziade, M., Boudreault, M., Thivierge, J., Capera, P., & Cote, R.(1984). Infant temperament: SES and gender differenc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a large Quebec sample. *Merrill Palmer Quarterly*, 30(2), 213-225.
- McDevitt, S. C.(1976).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continuity and stability in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Milliones, J.(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Rothbart, M. K.(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utter, M.(1988). Temperament: concepts, issues and problems. In E. M. Hetherington, & R. D. Parke(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Saslow, E. R.(1993). Temperament and day care: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xpression across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Scarr, S., & McCartney, K.(1988).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 environment effects. In E. M. Hetherington, & R. D. Parke(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Simonds, M. P. & Simonds, J. F.(1982).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preschool children's tempera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2, 19-31.
- Super, C. M., & Harkness, S.(1981). *Figure, ground, and gestalt: The cultural context of the active individual*. In: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R.M. LERNER N.A. BUSCH-ROSSNAGEL (Eds.). New York: Academic Press.
- Swet-Gronert, F.(1984). *Temperament in young children*. Paper presented at European Conference on Development Psychology, Groningen, the Netherlands.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unner/Matzel.
- Thomas, A., & Chess, S.(1986).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 :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Thomas, A., Chess, S., & Birch, H. G.(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pson, A., Lamb, E., & Estes, D.(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1), 144-148.

접 수 일 : 2008년 5월 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6월 19일